



# HD 현대일렉트릭 (267260)

주가 (7월 6일)  
시가총액

929,000원  
33조 488십억원

[Analyst] 이동현 연구위원  
✉ ldh@shinhan.com

이지한 연구원  
✉ leews307@shinhan.com

## 청주 배전공장 투어 후기: 초고압에서 배전까지, 성장의 판이 커진다

### 청주 배전공장 투어, 풀라인업으로의 확장

- [행사] 6일 청주 배전 캠퍼스 공장 투어 및 경영진 간담회 참석. 2.5만평 부지에서 VCB(진공차단기), ACB(기중차단기), MCCB 등 5만여 종의 배전기기를 생산하는 신규 거점
- [전략] 글로벌 배전기기 시장은 현재 185조원에서 2033년 312조원으로 성장 전망. 미국 대형 변압기 점유율 25.7%(2025년)의 초고압 경쟁력에 더해 배전을 전력 부문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. 투자의 축도 전력에서 배전으로 확대

### 전공정 자동화 기반의 배전 생산 경쟁력

- 청주 공장은 자동화율 70~95%의 전공정 자동화 스마트팩토리. 통합운영체제로 영업-생산 일원화, 납기 대응력 확보. ACB 일 130대 내외, VCB, MCCB 생산. VCB는 38kV급 중심으로 95%를 수출(대부분 미국향)
- 배전은 표준-양산형 단납기 구조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에 최적. 배전 확대에 따른 믹스상 마진 희석은 제한적이며 빅테크향 물량은 상당 수준의 이익률로 파악

### 미국 데이터센터·AI 수요의 직접 수혜, 인력 확보로 공급 병목 해소 중

- 7/2 글로벌 빅테크향 최대 1조 1,212억원(7.2억불) 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공급계약 공시. 배전기기(5,539억원)와 전력기기(5,673억원)의 패키지 공급으로 2028년까지 순차 납품. 북미 빅테크와의 수주 상담은 지속될 전망
- 연간 수주 가이던스는 42억불에서 52억불로 상향. 데이터센터향 배전 수요와 온사이트 발전용 회전기기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 가운데 생산인력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. 배전반용 중저압차단기 UL 인증 진행 등 공급 범위 확대 추진. 지속적인 인력 확보로 공급의 병목을 해소해 가는 중. 수주 다음은 실적 성장

### 주가만 쉬어갈 뿐, 업황은 여전히 좋다

- 765kV 변압기 등 하이엔드 시장 지위 견고. 알라바마 신공장 가세로 대응력 확대, 이익률·품질 우위 기반의 수주 최적화 전략. 변압기 수요는 노후 교체가 아닌 신수요 중심으로 신재생 전환 시 기존 화력 대비 3~4배의 변압기 소요
- 수주-매출 차이는 연간 2.5조원까지 확대. 호황 속 잔고 축적 국면이며 중기적으로 매출 성장을 통해 해소될 전망.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했으나 단납기 배전 물량 가세로 상회 가능성. 최근 주가 조정에도 수요-수주-증설의 선순환은 유효

## 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(작성자: 이동현, 이지한)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이동현은 상기 회사 HD현대일렉트릭의 기업설명회에 해당회사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.